

“페이스북, 왓츠앱 메시지 들여다보고 있었다”

“완전 암호화로 못 본다더니

1천여명 고용해 수백만건 감시” 미탐사매체 프로퍼블리카 보도

‘전 구간 암호화’(end-to-end encryption)를 적용해 당사자 외에는 누구도 메시지를 볼 수 없다고 공언해온 페이스북의 메신저 서비스 왓츠앱이 스파이-허위정보-혐오-학대-테러위협 등 감시를 명목으로 사용자들의 메시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의 비영리 탐사보도 전문매체 프로퍼블리카(ProPublica)는 7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이 계약회사 액센주어를 통해 1000여 명을 고용, 텍사스주 오스틴과 아일랜드 더블린, 싱가포르 등에서 전 세계 왓츠앱 사용자들의 콘텐츠 수백만 건을

조사한다고 보도했다.

프로퍼블리카는 또 왓츠앱은 이런 광범위한 모니터링 작업을 통해 확보한 콘텐츠 가운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등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와 함께 사법당국에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로퍼블리카는 자료와 문서 조사, 수십 건의 전·현직 직원 및 계약업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페이스북이 2014년 왓츠앱을 인수한 후 다양한 방법으로 보안 보장 약속을 훼손해왔는지 밝혀냈다고 이같이 전했다.

IT전문매체 기즈모도(Gizmodo)는 페이스북의 콘텐츠 관리는 왓츠앱 사용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메시지를 볼 수 없도록 보장하겠다고 약속해온 것과 완전히 다르다며 ‘전 구간 암호화’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혼란마저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앞서 “왓츠앱 메시지는 매우 안전해서 누구도, 우리 회사조차 한 단어도 읽을 수 없다”며 ‘전 구간 암호화’를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메신저에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년 상원 청문회에서는 “우리는 왓츠앱에서 어떤 내용도 보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프로퍼블리카에 따르면 왓츠앱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시간제 노동자들은 오스틴과 싱가포르 등의 사무실에서 특별한 페이스북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왓츠앱 사용자들의 신고로 인공지능시스템 검사를 거친 메시지·사진·동영상 등을 살펴보고 1분 안에 스파이·사기·아동포로·테러 음모 등을 판정한다.

왓츠앱의 커뮤니케이션 담당 칼 우그 이사는 오스틴 등지의 계약업체들이 왓츠앱 메시지를 검토해 ‘최악의’ 남용자들을 찾아내 제거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우리는 왓츠앱에서 ‘콘텐츠 관리’라는 용어를 않는다”며 이 업무를 콘텐츠 관리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왓츠앱은 프로퍼블리카의 임원은 서면 답변을 통해 “왓츠앱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생명줄”이라며 “앱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한 우리의 결정은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유지함으로써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월 캐가트 왓츠앱 대표는 올해 초 IT전문매체 와이어드(Wired)와 인터뷰에서 콘텐츠 감시에 대한 언급 없이 지난해 40만 건의 보고서를 어린 이 안전 당국에 제출해 사람들이 기소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프로퍼블리카는 사람들은 대부분 폭력적 이미지와 아동학대 성착취물(CSAM) 등 감시에 찬성하지만 왓츠앱의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육조어 있는 어린이 사진처럼 무해한 콘텐츠까지 너무 많이 모니터링 요원들에게 제공하는 문제가 있고, 페이스북은 이런 활동에 대해 사용자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중국 방송 규제 당국 연예업계 불러 애국애당·도덕 강조

중국에서 연예계에 대한 이른바 ‘홍색 정풍 운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방송 규제 당국인 국가라디오텔레비전총국(광전총국)이 업계 관계자들을 불러놓고 당과 국가에 대한 충성과 도덕성을 강조했다.

8일 환구시보에 따르면 광전총국은 전날 베이징에서 ‘애당애국(愛黨愛國)당과 나라를 사랑한다’, ‘송덕성애(崇德尚善)도덕과 예술을 숭상한다’를 주제로 방송 및 인터넷 동영상 종사자와의 좌담회를 열었다. 회의는 방송 등 프로그램과 종사자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방송 등의 종사자가 “큰 덕”을 알고 이를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가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지시로 풀이된다.

또 “당과 국가에 대한 애정을 키워야 한다”면서 “‘애당애국’을 본분으로 여겨 마음에 새기고 업무의 1순위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산당과 국가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한 것이다.

회의는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라가면서 국가부강과 민족진흥, 인민행복을 위해 일해야 하며 작품을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산당의 역사와 사회주의 발전사 등을 성실히 공부해 민족의 자긍심과 자신감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회의는 방송 등 종사자들이 공덕(公德·사회 도덕)과 사덕(私德·개인 도덕)을 지키며 깨끗한 품행으로 좋은 사회적 이미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마지노선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백신접종 80% 싱가포르 확진자 1년여만에 최다

코로나19 확진자 억제보다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이른바 ‘위드(With) 코로나’를 선언한 싱가포르의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코로나19 백신 2차례 접종 완료율이 80%가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전염성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확진자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8일 일간 스트레이츠 타임스와 CNA 방송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보건부는 전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32명이 발생, 지난해 8월 5일 이후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328명이 지역 감염자인데, 절반 이상인 185명이 이전 확진 사례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초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최다 규모로, 특히 일주일 전에 비해 3배가량 늘어난 수치라고 신문은 전했다.

지역감염자 수도 이미 지난해 1200여명으로, 직전 주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때문에 정부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 공동 의장인 로런스 왕 재무장관은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한 달 내에 일일 확진자가 2000명이 될 수도 있다”며 향후 2주간 모임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법정통화 반대 시위 중미 엘살바도르 정부가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한 첫날인 7일(현지시간) 수도 산살바도르에서 이 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탈레반, 과도정부 구성 발표...총리에 예상 깨고 모하마드 하산

아프칸 정부 출신·여성은 전무 미국무부 성명서 통해 우려감

20년 만에 아프가니스탄 재집권에 성공한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7일(현지시간) 과도 정부 구성을 공개했다.

AFP 등 외신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자비울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은 이날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몰라 모하마드 하산 아룬드 총리 대행 등 과도 정부 내각 명단을 발표했다. 무자히드 대변인은 “내각 구성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

았다”며 이것은 그냥 ‘대행’ 내각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대변인 수하일 사히도 8일 자신의 트위터에 내각과 주요 보좌자 등 30여명의 이름과 직책 명단을 영어로 올렸다. 사히도는 하산의 영문 직책을 ‘총리’(Prime Minister)로 표기했다. 하산의 총리 대행 발탁은 예상을 깨 인선으로 여겨진다.

그간 정부 수반 ‘0순위’ 후보로 거론된 조직의 2인자인 압둘 가니 바라다르에 비하면 무게감이 떨어지는 ‘경량급 지도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바라다르는 과도 정부에서 제1부총리를 맡았다. 하산은 탈레반이 결성된 남부 칸다하르 출신으로 지난 20년간 탈레반의 최고 위원회인 레흐바리 슈라를

이끌었다. 군사 업무보다는 종교 관련 분야에서 주로 일했으며 탈레반의 과거 통치기(1996~2001년) 때는 외무부 장관과 부총리를 맡기도 했다.

탈레반의 연계조직인 하카니 네트워크를 이끄는 시라주딘 하카니는 내무부 장관을 맡게 됐고, 탈레반 창설자 모하마드 오마르의 아들인 몰라 모하마드 야쿠브는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됐다.

몰로이 압둘 살람 하나피는 제2부총리, 몰로이 아미르 칸 무타키는 외교부 장관으로 각각 임명됐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최고 지도자 하이바툴라 아룬드자다의 역할이나 세부 정부 체제 형태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더워지는 지구에 적응 동물 체형 바뀌고 있다

열 발산 기능 부리·귀 커져 호주 디킨 대학 조류 연구팀

지구온난화에 적응하느라 동물들이 체형을 바꾸고 있으며, 특히 조류에서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동물은 부리나 귀 등 부속기관(appendage)을 통해 열을 발산하며 체온조절을 하는데, 더워지는 지구에 맞추려다 보니 이런 기관의 크기가 커지고 전체적인 몸의 비율이 바뀌면서 체형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호주 디킨 대학 조류학자 사라 라이딩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조류를 중심으로 기온 상승과 기후변화에 따른 동물의 체형 변화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과학 저널 ‘생태와 진화 흐름’에 발표했다.

이를 발행한 ‘셀프레스’(Cell Press)와 외신에 따르면 연구팀은 부속기관의 형태를 다른 과거 연구 결과를 체온조절 관점에서 재분석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호주 앵무새로 지난 1871년 이후 여러 종(種)의 부리 크기가 4~10% 커졌으며, 여름철 기온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미 검은눈방울새도 부리 크기와 겨울철 기온 간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제시됐다. 포유류 중에서는 숲 쥐의 꼬리가 길어지고, 뒤쥐는 꼬리와 다리가 길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이런 변화가 광범위한 지역에서 여러 종(種)에 걸쳐 발생하고 있어 기후변화 이외에 다른 원인을 찾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가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